

# 오광해 초대 개인전 '묵묵헌답'

기린미술관에서 16~30일 한국화 작품 전시

현재 미술계에서 한국화는 존립마저 위태로운 비주류에 속한다고 한다. 이유는 서구화, 현대화가 이루어지며 예스럽고 구태연한 것으로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 너무 단편적이고 표피적 이유로 수천 년을 이어 온 표현 방식이 자본의 정직한 시장 원리에 의해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 한국화가 오광해 초대 개인전 '묵묵헌답(墨墨賢答)'이 오는 16~30일 기린미술관에서 열린다.

오광해 작가에 따르면, 시장 유통을 목표로 두지 않는다면 어떤 유행이든 모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작업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지 않다면 평생 모든 것을 감내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동양화나 서양화를 먹을 사용하는지 기름물감을 사용하는지와 주로 다루는 그림의 소재로 구분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 작가는 현재까지 나를 표



오광해 작가

현할 수 있는 소용 방법으로 적합한 것이 그림이었고 익숙한 도구로는 한지에 붓과 먹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수묵화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

오 작가는 "그동안 예술 사조나 시장의 주류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내 표현 방식과 도구에 한계를 느껴 본 적은 없었다며 지필묵과 함께 氣韻生動이나 文氣나 여백은 낡은 재료와 개념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한국 사람의 '한국화'의 정체성과도

결맞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화 또는 동양화라고 해도 상관없다. 점점 장르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 지고 용어 정립이나 정의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물론 탈 매너리즘과 새로운 창작과 표현의 경계 타파를 지향 할 때 고전을 수용한 법고창신이 가능한 한국화도 수묵화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소나무, 정물, 산수, 모란초, 동거 등 작품을 선보인다.

끝으로 그는 "전시를 자주 하지 않지만, 한가지 전시 주제의 일관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기간이 흘렀다면 다양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내가 한국행위예술가협회 작업에 참가하는 것도 한국화의 다소 고답적인 시각의 고착화를 피하기 위한 일환일 수 있다"며 "하지만 금맥을 발견하듯 새로운 재료와 기법의 발견과 발굴에 열안이 되거나 현대미술에 먹살을 집고 싶지는 않다. 그동안 열린 선택으로 버려왔던 작업의 가치를 믿는다"고 이번 전시회와 관련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 4기 출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놀이 가치 확산 · 우리놀이문화 홍보 추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3일 우리놀이 마루에서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 4기'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임명장 수여식,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 활동 소개, 전통놀이 체험 및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4기째를 맞는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는 전통놀이의 즐거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놀이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이다.

한편 완산여자고등학교 청소년 16명으로 구

성된 서포터즈는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되는 각종 놀이 행사에 참여,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며 우리놀이문화 홍보에 힘을 예견이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놀이의 가치와 즐거움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를 4년째 운영하게 돼 뜻깊다"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전통놀이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원은 제15대 박현 문화원장 취임식을 3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 국립전주박물관, 라탄공예 무료체험 진행

미학적 감성과 실용적 기능을 한 번에 사로잡는 '라탄공예' 무료체험이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3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에 따르면 4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라탄공예 '라탄 월넛 트레이 만들기'를 오는 13일 오후 1시와 4시 두차례 열린공간 온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5~10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신청할 수 있

다. '라탄공예'란 동남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등나무의 얇은 나무줄기인 '라탄'을 이용해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공예로, 이번 체험에서는 월넛 할판에 라탄을 엮어 감성적인 라탄 트레이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은 식물줄기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쟁반을 수공예로 만들 예정"이라며 "공예품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실용성까지 모두 잡는 체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김제문화원, 제15대 박현 문화원장 취임

"김제 향토역사 뿌리 · 정신문화 재정립, 시민 자긍심 · 품격 높이는 데 최선"

김제문화원은 3일 제15대 박현 문화원장 취임식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4대 김선유 원장의 이임식과 함께 열린 이날 이·취임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시의회의장, 기관단체장, 한국문화원연합회 김대진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각 지역 문화원장과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식전행사는 김제문화원 춤사랑 팀의 장구춤 공연과 박정순 명창의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 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신임 박현 원장은 "지역 문화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인 김선유 원장에 이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김제 향토역사의 뿌리와 정신문화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김제 시민의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임 박 원장의 임기는 이날 1일부터 시작됐으며 문화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선거를 거쳐 중임이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북여성가족재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발전 유공 '행안부 장관상'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발전 유공' 시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은 매년 전국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및 정부 지자체 정책 준수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588개 기관 중 최종 9개 우수기관을 선정,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우수기관으로 수상하게 됐다.

이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은 △경영평가 2년 연

속 '가'등급 달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선도적 경영개선 우수 △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체 혁신 추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확산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정희 원장은 "2023년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뜻깊은 해이며, 이런 시점에서 전국 최고 우수 출연기관으로 인정받게 돼 더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



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지역 의료관광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 오는 17일까지 지역 의료관광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나섰다.

3일 재단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전북특별자치도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다.

지원분야는 홍보물 제작(영상, 리플릿 등),

광고진행, 행사지원(박람회, 세미나 등)이며, 사업자별 항목 구분 없이 기관 당 최대 1,500만원, 5개 내외의 기관을 지원한다. 선정결과와 공모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적격검토 및 서면 평가를 통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 구혜경 관광사업본부장은 "치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선화당

#### 관풍각

#### 내아